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e - Focusing on th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 -

김민경*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Kim, Min Kyeo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migrants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A total of 11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 The participants provided their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skill on a variety of issues related to migrants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nterview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perceived negative and positive affects to Korean society and prejudice about immigrants, thought economic support as an emergent policy, and didn't experience multicultural society. They wanted to take a trip and learning foreign language. On the cultural skill participants had progressive perspectives about immigrants' right, discrimination and evaluation and had a multiculturalism based on assimilation.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It is needed to educate and develop programs for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cultural competence.

Keywords: multicultural competence, cultural cognition, cultural knowledge, cultural skill, university students, qualitative study

I. 서론

세계화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주자, 국제결혼 이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지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자의 정확한 수치에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2009년에는 2008년 891,341명보다 24.2%가 증가한 1,106,884명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09).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

적도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이주민의 국적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접촉하게 되는 문화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새로운 문화들 간의 접촉의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는 글로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과 정신

[†] 본 연구는 2009년 남서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Kim, Min Kyeong

Tel: 041-580-2329, Fax: 041-580-2924

Email: mkm35@nsu.ac.kr

건강과 교육복지에서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키워드로 다루어졌다(Luquis & Pérez, 2006; Sue, 2006).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 가족학, 아동학, 의료,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고, 서비스 조직의 인가에도 문화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고 직원의 보수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다(AMA, 1999; APA, 1990; Boyle & Springer, 2001; NASW, 2001).

이렇듯 문화적 역량개발은 세계화, 다문화되고 있는 시대에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능력소유라는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실천현장으로 진출할 예비 실천가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은 실천현장에서 그대로 스며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가의 다문화 역량개발은 더욱 요구된다.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이야말로 추후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관건으로서 다문화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실천가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의 하위요소인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등은 다문화사회시민을 검증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며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있어 요구되는 현실적인 정책대안 및 과제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증적 근거들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뿐만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시민의 새로운 의식과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집단은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식과 태도의 확립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상호존중하고 협력적인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영역에서 다양한 집단과 공존하며 협력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문화 역량은 오늘날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해야한다는 당위성과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해왔고 다문화 역량에 부분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초기단계에 있다. 그동안의 연구가 다문화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넘어 실천적인 역량개발이 요구되어짐을 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사회 젊은 세대의 보다 포괄적인 다문화현상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주된 기여자인 결혼이민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 또한 의미가 있으나 이들과 접촉하고 바라보는 반대의 입장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문화적 역량이 어떠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순조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노동자 등 이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조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질문지를 통한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도 필요하나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다문화현상을 전달할 수 있는 심층적인 질적 고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한 이제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문화적 역량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식을 위주로 살펴 보았거나(민성혜, 이민영, 2009),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적 다양성태도(김정화 외, 2010; 인태정, 2009), 사회적 거리감(김상학, 2004; 인태정, 2009; 장태한, 2001; 전영자, 전예화, 2009), 고정관념(전영자, 전예화, 2009) 등을 중심으로 양적연구를 통한 문화적 특성관련 변인간 관계성을 파악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양성은, 2008)만이 심층적 인터뷰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만을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토대로 기성세대보다 고정관념이 적고 개방적인 의식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가치변화를 가늠해 보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추적해 봄과 동시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 이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파악해 보는 것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적 가치관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때 개인적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인정하고, 문화적 규범, 태도, 신념을 알아가며, 다양성을 가치있게 여기며,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타인과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적 집단의 신념과 태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문화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다문화 역량을 발휘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과 서로 어울려 살면서 이들과 관련된 각종 이주관련제도 및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대학생이 다문화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역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과 다문화 의식 및 수용성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역량의 개념

문화적 역량은 의학,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등 제 휴먼 서비스분야에서도 사용될 뿐만아니라 경영학, 마케팅, 국제관계 등 타분야에서도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Aponte *et al.*, 1995; Lum, 2007).

학문분야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상황에서 사회 기관이나 시스템,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일관된 행동과 태도, 정책, 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행동과 태도, 정책의 시행주체는 전문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직 전체가 될 수 있다(Cross *et al.*, 1989).

통상적으로 문화적 역량이란 말이 사용될 때는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인식 또는 비교문화 기술 등으로 혼용된 여러 가지 의미를 지칭한다(Diller, 2007). 문화적 민감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다양성에 대해 어떤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반면 문화적 인식이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각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들의 가치와 경험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강점이라는 관점에서 각 문화에 내재하는 장점, 자원, 자산을 인정하면서 소수 문화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개념이나 결함을 보는 시각(deficit model) 자체로

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Lum, 2005).

Campinha-Bacote(2002)는 건강관리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문화적 역량의 과정 모델을 제시하면서 화산모양의 상징적 모델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욕구, 문화적 만남,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자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McPhatter(1997)는 ‘문화적 능력 획득이론’(Cultural Competence Attainment Model)에서 문화적 능력을 계몽된 의식, 근거에 기반한 지식기반과 축적된 기술적 능력의 세 요소로 지적하였다. Manoleas(1994)도 문화적 능력모델에서 문화적 역량은 지식 기반, 기술 기반, 가치 기반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문화적 역량은 하나의 과정으로 계속 발전가능하게 열려 있으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Weaver(2005) 또한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를 세가지 즉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문화적 지식, 문화적 실천과 지역 및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기술, 사회내에서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는 문화적 인식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문화적 역량이 갖는 공통적인 요소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의 문화의 다양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다양한 문화에 관한 지식,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기술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Boyle & Springer, 2001; California Endowment, 2003; Lum, 2005; NASW, 2001; Sue & Sue, 2003).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첫째,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적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인정하고, 문화적 규범, 태도, 신념을 알아가며, 다양성을 가치있게 여기고,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상이한 환경가운데 편안함의 수준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화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야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수업, 워크샵, 세미나에 참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문헌을 읽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영화, 다큐멘터리 보기, 문화적 사건들과 축제에 참석하기, 타인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를 방문 하는 것 등이다. 셋째, 문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전문적, 직업적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언어를 배운다. 또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서들을 배우고, 타문화적 환경에서 더 편안해하며, 문화적 집단의 신념과 태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문화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김민정, 2010).

결론적으로 문화적 역량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문화적 다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 둘째,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세계관에 관한 지식, 셋째, 문화간 교류하는 기술(cross-culture skill)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적 역량 관련연구

집단 간 접촉에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대방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전반적 태도와 행동 경향성은 상대방 집단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과 인식의 내용에 의해서 영향받으며, 이는 집단 간 갈등, 인종편견 및 성 고정관념 등에 대한 연구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왔다(Brewer, 2003; Crocker *et al.*, 1998; Kunda, 1999). 인종이나 집단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연출되는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변화(Clark & Legge, 1997; Hainmueller & Hiscox, 2007; Ruefle *et al.*, 1992)와 국적과 시민권(Medrano, 2005; Medrano & Koenig, 2005), 외국인 혐오증(Lewin-Epstein & Levanon, 2005)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 불과 얼마전부터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박수미,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자나 그 자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설동훈, 2006) 등에서 수용과 유사한 관심들이 나타나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한 연구(김이선 외, 2007)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수용성을 파악한 연구(양애경 외, 2007)가 진행되었다. 이정우(2007)는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세대에 걸쳐 폭넓게 만연되어 있고, 후속세대로 전이되며,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다문화시대 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윤갑정, 김미정, 2008)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높은 친밀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윤상우, 김상돈, 2010)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과 복지실천현장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먼저 정연희(2007)는 미술교사의 문화적 역량에 관해 연구한 결과 교사의 문화적 실천역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문화적 유능감에 관해 연구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 유능감정도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최연선 외, 2008a). 이들은 문화적 역량이 동기부여기술이나 임파워먼트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면서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최연선 외, 2008b). 실천현장에 따른 담당자의 문화적역량의 수준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역량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차이인식영역, 자기가치인식영역, 타인가치인식영역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자기가치인식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적 이해도에 있어서는 중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민성혜, 이민영, 2009).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양성태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에서는 자연과학 및 의·약계열보다 인문계열 전공학생이 학습 및 경험요인에서는 문화다양성강의를 수강한 경우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양성태도가 높았다(김정화 외, 2010). 대학생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자, 전예화, 2010). 국제결혼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 장기간 교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국제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고 국제중매결혼이 일부에서 매매혼, 사기결혼, 위장결혼의 형태를 띠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국제결혼을 철저히 수요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다는 점으로 나타났다(양성은, 2008).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고 있다.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체험 및 경험적 학습, 공감 등과 관련됨을 주목하면서 우리 사회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 이해도(양육방식, 생활양식, 의사소통방식), 체험·경험적 학습(외국인 자원봉사 경험, 외국인 친밀도)이 공감(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점, 개인적 고통)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민성혜, 이민영, 2009).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성을 갖는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세계시민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Kymlicka, 1995). 김정화 외(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자원봉사 경험은 세계시민의식에 긍

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양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비호감을 느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개방성이 높았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호감을 느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에서의 학습기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여행, 이주민접촉과 같은 개인적 체험 등이 문화적 역량을 습득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ronin, 2005).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고 긍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전영자, 전예화, 2010).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한국대학생들의 인종민족의식에서 백인선호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서구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서구화현상이 강했으며 부산지역대학생이 외국인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고 대구나 광주지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다고 한다(장태한, 2001). 네 개의 사회적 소수자집단(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고 분석한 김상학(2004)은 대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사회적 소수자집단의 특정 한집단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다른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크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인태정(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지향을 위한 인종거리감에 대한 태도에 진보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보편주의적 가치를 지향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인종거리감은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진보적인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보편주의가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외국인접촉경험과 국외에 외국인친구를 가진 사람일수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다. 즉 인종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변화는 교육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 및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각 출신지별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으며 미국인에 대해서는 여성이, 새터민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진 외, 2010).

이상과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에

서 성별, 지역, 이주민 대상별, 가치, 외국인 접촉경험,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주민과의 사회적 거리감과 이주민과의 관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인식, 사회적 거리감,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태도 등 다문화에 대한 부분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 다문화사회를 주도할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자가 연구주제에 관한 복잡한 지식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 지식은 내담자에게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을 경우에도 명백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연구의 주제에 관한 질문을 내담자에게 하면 내부자가 다시 재구성하여 대답한다는 주관적인 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구조와 층의 테크닉으로 표현되는 이야기의 구조와 문체의 여러 가지의 심층구조를 알게 되며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 자세한 이야기의 부분을 알게 된다(박성희, 2004). 이러한 질적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화적 역량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년제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는 다문화행사나 다문화관련 기관에서 봉사경험이 있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학생이라는 위치는 다문화된 한국사회의 미래 실천현장의 주인공으로서 이들의 다문화역량은 우리사회 미래 다문화사회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비 다문화정책책임안자와 실천가로서 이들의 다문화역량은 추후 우리사회 사회통합의 주도권을 가진 잠재동력이다. 셋째, 다문화에 대한 막연한 관심보다는 본인이 실제 봉사나 해외 여행 등을 통한 경험이 다문화역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포함시켰으며 대학생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주역이 될 대상이며 최근 다문화라는 현상을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학년	다문화 봉사경험	외국여행경험	사례	성별	연령	학년	다문화 봉사경험	외국여행경험
1	여	21	2	있다	있다	7	남	22	2	있다	없다
2	여	22	3	있다	있다	8	남	25	4	있다	없다
3	여	22	4	있다	없다	9	남	25	4	있다	있다
4	여	22	4	있다	없다	10	남	24	3	있다	없다
5	여	22	3	있다	없다	11	남	25	3	있다	있다
6	여	24	4	있다	있다						

체험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한 여학생 6명, 남학생 5명이다. 이들 학년은 2, 3, 4학년으로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모두 미혼이었다. 참고로 외국여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비확률표집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표집은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인터뷰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을 모두 표집할 수가 없어서 이미 면접을 한 피면접자들을 통해 다시 그들이 알고 있는 학생들을 소개받거나 인터뷰를 자원받기도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의 두가지 원리는 적절성과 충분성이다(신경림, 1997). 표본추출의 적절성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문화 관련행사 참여나 기관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총 11명을 인터뷰하였고 연구참여자 및 심층면접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조사방법

2010년 3월과 4월에 걸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본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개별대상자와 심층 면접을 하였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조사대상

자 및 조사내용을 검토하였다. 면접은 조사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희망에 따라 센터상담실, 연구실,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조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사례당 면접 시간은 보통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심층면담은 비구조화된 개방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분석시에도 추가, 보충면담을 하여 모든 범주가 포화상태에 이를때까지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녹음된 면접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추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보충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접촉하고 있는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사례간 비교를 통해 문화적 역량의 전반적인 양상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전공, 학년 등을 조사하였으며 문화적 역량에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등을 살펴보았다. 면접문항은 국내외 관련문헌들(김상학, 2004; 양성은, 2008; 양애경 외, 2007; Brewer, 2003; Manoleas, 1994; Weaver, 2005)을 고찰하고 인터뷰에서 각 참여자들에게 과연 본 연구진의 의도가 적절한가를 재 질문하였으며 본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자문진과 전문가 모두 그 적절성에 동의를 얻고 논의를 거쳐 예비질문 문항을 구성하고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점검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첫째 문화적 인식은 개인적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인정하고, 문화적 규범, 태도, 신념을 알아가며, 다양성을 가치있게 여기고,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며 상이한 환경 가운데 편안함의 수준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내용으로 이주민의 영향, 이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지역구성원으로서 이주민, 국가적 지원과

대책,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문화적 지식은 자신의 문화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야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수업, 워크숍, 세미나에 참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문헌을 읽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영화, 다큐멘터리 보기, 문화적 사건들과 축제에 참석하기, 타인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것 등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타문화습득에 대한 노력, 이주민문화와 지식, 이주민의 가족관계, 이주민의 한국문화수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문화적 기술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전문적, 직업적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언어를 배운다. 또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서들을 배우고, 타문화적 환경에서 더 편안해하며, 문화적 집단의 신념과 태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문화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이주민정책의 영향, 이주민의 권리,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이주민에 대한 평가, 이주민에게 한국의 언어, 관습, 가치 강요, 이주민과의 대면 등을 살펴보았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심층면담 기록을 원자료로 하여 기본틀을 구성하였고 관찰기록과 메모, 문서기록, 연구메모의 내용을 비교, 분석, 종합하였다. 먼저 면접 분석방법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방법인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활용하였다. 분석시 연구자의 질문을 통해 자료를 보는 방식과 개념적인 질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조, 비교하여 차이를 추출해 내도록 노력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연구자의 다음 사례의 관찰과 면접과정을 더욱 집중케하기 때문이다. 자료분석은 먼저 녹취된 모든 면접을 기술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뷰시 기록했던 자료들도 참조하여 나타난 사건, 행동, 감정,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조직화하는 주제분석을 하였다. 필사된 자료를 여러 차례 탐독하면서 자료에서 찾아지는 일정한 패턴과 주제를 찾았고 유사한 개념의 주제끼리 묶었으며 그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였다(Hatch, 2002; Huberman & Miles, 1994). 또한 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비교,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질적연구자 2인으로부터 최종

적인 개념들과 범주들을 설정하는 자료의 타당화과정을 거쳤다.

5. 연구의 윤리성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와 본격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면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동의서를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은 최윤정 외(2003)의 질적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적용성에 따른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중립성(neutrality)의 고수이다.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가능한 해방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연구에 대해 선 이해, 가정, 편견 및 주제와 관련된 개인 경험 등을 보고하며 자기 성찰과 민감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대학생과의 의견교환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활발한 피드백을 교환하여 합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일관성(consistency)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에 따른 정확한 과정, 특히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자에게 연구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높였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trust-worthy)'는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유태균, 2001).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 중 2인을 선정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다.

넷째, 질적 연구에서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상황 외의 맥락에서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 전공 교수와 다문화연구 전문가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본 연구가 연구 참여자 이외의 대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식

1) 이주민을 두축으로 바라봄

이주민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이주민 증가는 우리사회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의견과 단편적으로 긍정적 영향만을 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즉 이주민 증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언급한 경우에 이주민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과 결혼을 상승, 인구수 상승, 노동력제공 등 우리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 다른 문화를 알아가는 경험제공 등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였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는 성폭력, 범죄, 불법체류 등 우리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다른 문화를 알아가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주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귀한 인재가 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주남성의 경우 뉴스를 통해서도 성폭력을 행하는 등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들은 영향도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를 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좋지 않은 뉴스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생2)

이주민의 증가가 결혼률 상승, 인구수 상승, 기피업종에 대한 노동력 증가 등 우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보여 표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인 무섭기도 해요. ((중략)) 이주민의 증가는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인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학생10)

또한 긍정적 측면만을 언급한 경우에도 이주민의 증가가 한국사회에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제공해 주고 우리사회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주민의 증가는 우리에게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수가 적당히 증가하는 것은 분명 우리사회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을 고집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지만, 글로벌 시대이고,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대학생8)

따라서 대학생들은 이주민증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양면적 측면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준비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주민증가 자체를 긍정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중적 결과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사회가 인식할 필요성이 있겠다.

2) 색안경끼고 이주민 바라봄

이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은 모든 연구참여자가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주된 부분은 외모, 경제적 문제, 언어, 기타 음식이나 사고방식 등으로 한국인과는 다른 피부색, 지저분함, 냄새 등으로 인한 외모의 편견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제적 여건이 연구참여자들의 편견의 주 원인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주민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한국인과 어울릴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이 채워지면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인이 될 수 없다’ 등 이주민이 한국인과는 통합될 수 없다는 면을 지적하여 이주민과 한국인과의 거리감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과의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향후 다문화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서투른 언어와 한국인과 다른 피부색이죠. 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뒤떨어진 제3세계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거겠지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만은 아닐 텐데 말이죠. (대학생5)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서 왔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즉 외모적인 모습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고정관념으로 인

해 이주민은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대학생6)

이주민에 대해서 대부분 갖는 편견이 우리와 다른 피부색으로 인한 다른 몸 냄새, 사고 관념 그리고 한국 음식을 안 좋아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겠고 다른 것으로는 한국인과 어울릴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대학생11)

대부분 한국에 오는 이주민이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할 것이다, 지저분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같다, 다르기 때문에 무섭다, 자신의 이익이 채워지면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등 한국인이 될 수 없다와 같은 것이 있죠. (대학생9)

3) 이주민지원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들

이주민이 지역사회성원으로서는 이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과 보편적인 국가적 지원에 대한 입장이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나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이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의 근저에 이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보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올바른 이민법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등 지나친 지원보다는 한국인과 같은 기회제공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가적 지원에 대해 신뢰를 갖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인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시행정이나 서비스중복 등을 떠나 이주민자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국가적 지원에 대한 진보와 보수 입장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지고 있어 다양한 목소리로 합일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 각각의 인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식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게 사실이지 않나 싶네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도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민여성들에 대한 취업준비나 경제적 지원이라 던지 많이 부족한데요. 이전 우리나라도 다인종이 사는 나라도 되고, 특히 이민여성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국가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생1)

결혼이민여성을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7)

제일 중요한건 그들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이민법이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인과 같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11)

국가의 전시행정의 경향이 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서비스의 중복도 큰 것 같고 무엇보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것을 무시하고 단지 그들을 해결해야 하는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2)

4) 모두를 아우르는 이주민 지원하기

이주민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대책은 경제적인 지원, 이주민 자녀지원, 결혼생활을 위한 기초지식습득,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이주민과 자녀의 언어지원 등이 언급되었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일자리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직업창출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자녀의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들의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문제의 우려와 긍정적 기대가 교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문제의 예방차원이든 능력개발차원이든 앞으로 우리사회의 미래사회 발전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교육적 복지적 개입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에서 일방적인 이주민정책이 이주민만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한국인과 함께 공존하는 정책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은 이주민만을 수용하고 우리사회에 함께하는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확산됨으로써 다문화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수혜가 이루어지

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한국사회에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주민에 대한 언어적 지원과 그 자녀들을 위한 언어교육 등이 필요하며 한국가족체계내에 진입된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생활유지에 대한 기초지식의 습득은 문화교육이자 경제교육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이 부분은 결혼이민여성에게만 국한된 가정생활유지교육이 주부로서 역할부담을 주는 가부장적 잔재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중심, 가족을 포함한 통합교육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주민자신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이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 언어, 가정생활유지교육과 이주민의 반대편에 있는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일정부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정책이 어느 한 대상만을 하기보다는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면... 경제적인 문제?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정말 남성이던 여성이던 경제적으로 뭐라도 일을 시켜줘서 일을 해서 벌어야지 먹고 살 것인데, 그런데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이라고 해야 하나? (대학생1)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문화가족의 2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 같이 타문화 수용에 대해서 개방적인 편이 아니잖아요?(개방적이라고 하는 미국도 타나라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빠른 경우엔 2세대들이 이제 한참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혼돈하는 시기가 올 텐데 이것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차별적인 눈초리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생8)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대책은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의 습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생활비관리 방법이라든지, 세금관련 지식, 재테크 방법 등이 많이 서툴고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교육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 엄마들보다 자녀 양육에 있어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시집와서 단순히 아이 낳고 농사짓거나 식당에서 일하는 단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습득을 통해 더 윤택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뒷받침되었음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9)

시급한 것은 역시나 우리의 인식개선! 그리고 그들이 더 쉽게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까지의 지역사회나 국가의 도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제까지나 멀리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식을 지켜보기만 하는 방관자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적으로 나서서 그들과 우리들의 인식개선과 만남의 시간을 늘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대학생4)

5)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모양새

장차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다문화인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나친 개방보다는 우리사회의 경계를 지키며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이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성과 포용력 등을 언급하였다.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절대적으로 개방적 태도가 아닌 우리문화에 대한 고수를 전제로 다문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사회가 한국인과 이주민 둘다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다문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중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과정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다문화화를 지향하지만 완전한 개방은 우리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내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에게 황인종, 흑인종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외국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백인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동남아인들은 깔봐도 되는 존재고, 흑인들에게도 그닥 호의적이지 않고 말이죠. 다문화 사회이지만 어쩌면 백인문화 하나에만 신경 쓰고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릴 적부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편견을 없애고 다 같은 인종이고 사람이고, 그들을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1)

한국이 단일문화사회에서 점차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11)

2. 지식

1) 다른 문화 만남을 위한 귀기울이기

다른 문화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참여의 형태는 다르나 참여했거나 참여자체를 하지 않은 소극적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데 책을 통한 간접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해 문화까지도 습득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다른 나라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소극형으로 참여욕구는 다르나 여행하거나 언어습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가 대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접근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다른 나라 문화지식습득을 위한 여행, 봉사, 체험, 관찰 등 다양한 시도와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행기 같은 소설책을 읽곤 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책 등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해요. 또 고등학생 때 독일어를 배우며 독일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적이 있어서 독일문화원에서 하는 축제에 참가한 적도 있어요. 세계여행을 다녀본 친구나 지인들에게 여행기를 들곤 했죠. 다른 문화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직접 다녀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10)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외국인 주민 센터는 이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민과 외국인이 주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 전담기관이었는데 그 곳에서 외국인 지원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 문화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들을 탐방하고 싶어요. (대학생3)

2)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읽히기

다른 나라의 문화와 민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부재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리하고 더 나아가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을 통해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까지도 이해한다면 더 심층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우리가 다문화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필요

한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현재 학습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교육과 지식 등이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하여 이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교육이라는 접근방법이 필연적인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은 솔직히 배워도 초, 중, 고등학교까지 잠깐 정말 조금 배우게 되는 게 그마저도 고등학교 때는 입시공부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나 민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기도 더 어렵고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배워도 편견이 생기는데, 아예 배우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편견이 심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선 많이 배우고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1)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길 문화이겠죠. 그 문화를 접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4)

문화적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문화나 생각, 관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는지 알면 더욱 쉽게 그들의 지식이나 생활습관을 알기 용이할 것 같아요. (대학생6)

3) 이주민의 가족세계 들여다보기

이주민의 가족관계는 많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 관계로 자신의 환경에 근접한 이주민을 경험한 결과가 대부분이다. 즉 친척과의 관계에서 한국여성보다는 소홀하고, 우리나라의 가부장 체제에 대해 힘들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언어와 문화, 연령간 큰 차이는 가족관계에 있어 한국남편이 결혼 이민여성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주민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가족내적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인보다 이주민의 경우 친가족 사고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행동이 독립적이며 한국내 남편보다는 부족한 자원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여성이었는데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서도 별다른

차이는 느끼지 못했지만 친척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한국여성 보다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학생2)

부부관계의 경우 한국의 문화에 상대적으로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관리도 남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이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가족관계의 경우 시어머니는 한국의 문화를 결혼이민여성에게 많이 가르치려 하는 것 같고 결혼이민여성에게 의지하려는 것보다는 가르치고 도와주고 배려해주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한국인보다는 한국사회에서의 약자로 보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6)

제가 봤던 부부의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나이가 많이 어려서 남편이 계속 챙겨주고 질문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대학생4)

4) 이주민의 우리문화 받아들이기

이주민의 한국문화의 수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개인이 한국가족에 편입되므로 한국가족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을 알 수 있다. 교육에도 적극적이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적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주민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사회에서 보다 빠른 편입을 앞당기고 적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주민의 문화정체성과 다양성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문화 수용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다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가 어느새 녹아져버리는 것 같아요. (대학생2)

어떤 이유든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우리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 같아요. 특히 언어, 의복, 생활방식 등은 우리의 것을 거의 수용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7)

인터넷이나 많은 기사들을 보면 그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서 진행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는 이주민의 모습도 종종 나오는 것 같고, 한글교육에 열의를 보인다는 것도 보이고 하는 것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용하는 태도도 적극적인 것 같아요. (대학생4)

3. 기술

1) 이주민정책이 부메랑 되어오기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단지 이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우리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남겨나 우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정책이 단순히 한 대상을 위한 정책으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순환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와있는 이주민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입장을 달리하여 각처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에게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적극적인 이주민정책의 방향보다 우리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관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상당수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고 이주민의 2세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들을 위한 정책에 쓰일 돈으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나라의 구성원이 된 이주민들을 진정 한국인으로 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들이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2)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어 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래에 우리에게 더 유익할지 모르죠. 현재 이주민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는 육아, 교육, 부부관계 등의 문제)을 파악하고 정책을 펴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래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했던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욱 빨리 해결하는 등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대학생6)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피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조금은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 주고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퍼져있는 우리나라의 동포들도 각지에서 이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8)

2) 이주민의 목소리 내기

이주민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물음에 이주민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일방적

권리주장보다는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의 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를 침해받고 싶어하지 않는 보수적 감수성이 온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위법적이지만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생7)

결혼여성인민 사이버카페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임 및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생길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대학생5)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이주민의 권리주장을 위해 모임에 참여하고 단체를 결성하고 더불어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법제정, 관련시설이나 기관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단순히 권리주장을 넘어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과 정책제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언급은 이주민정책의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보다 성숙된 대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을 엿볼 수 있다.

이주민들은 적절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대모를 한다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변하는 한국 단체를 만들어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9)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 인간적인 권리는 주장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그에 맞는 법을 개설하거나 또한 관련된 시설 및 기관을 만듦으로써 가능 할 것 같아요. (대학생11)

3) 이주민을 다른 위치에 놓기

이주민들의 차별에 대해 외모와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을 언급하였다. 외모에 있어서는 동남아시아인은 무시받고 서양인은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피부색은 차별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 내면에 백인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민이 인격적 존재보다는 한국의 도구적 존재로 보아지는 면을 지적하였다. ‘한사람의 존엄성보다는 우리나라

에 와서 일하는 사람, 또는 살림하고 시부모 봉양하고 애 낳아 키우는 도구적인 존재’라는 언급은 이주민차별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잘 드러내 주는 표현이다. 앞서 언급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등과 연결된 개념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사회는 차이에 대한 긍정에 익숙해져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반면에 이주민으로서 우리사회의 법적 구속망을 벗어나거나 외국인인 선호하는 곳도 있어 항상 차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반면 무조건적인 수혜나 호의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망이 마련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모로 배경으로 차별을 많이 받는데, 출신 국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는 무시하고, 서양 쪽은 거기 보단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워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주민들도 보면 딱 외모로도 보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대학생1)

차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불평등한 고용관계가 가장 문제겠죠. 심각하게는 한사람의 존엄성보다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 또는 살림하고 시부모 봉양하고 애 낳아 키우는 도구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 같기도 해서 화가 나기도해요.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었을까 말이죠. (대학생5)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에 비해 값싼 인건비를 받고 종종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을 듣기도 하죠. 피부색이 달라서 받는 배타적인 시각들도 차별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흥대의 어느 클럽들은 free for foreigner를 써놓고 외국인을 선호하는 곳들도 있어요. 또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자국으로 소환된 자국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체류자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면일 수 있어요. (대학생9)

4) 가감없이 이주민 대하기

인종 및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모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종, 국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다소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 이

주민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중적 접근, 이상과 현실, 평등과 불평등 등을 연구참여자들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우리사회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평등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겐 우리는 한민족국가라는 타이틀을 버리지 못한 편견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어딘가 우리와는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5)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인간은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아직도 개인의 능력 보다는 인종/민족적 배경에 의해 많이 차별되어 진다고 봐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남아나? 유럽이나? 등 우리나라도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 배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6)

5)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이주민에게 우리나라의 언어, 관습, 가치 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나친 강요는 안되지만 우리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 관습, 가치 등은 배워야한다는 동화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주민의 문화까지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언어 및 관습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다소 다문화주의적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대학생들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동화주의에서 대다수가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주의적 태도가 소수 나타나고 있어 다문화주의로의 변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로선 얼마되지 않은 기간안에서 완전한 모습의 다문화주의가 자리잡는데 변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평등주의적 가치를 끌어안고 상호관용의 정신속에서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나아가 세계

의 공동체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도 있긴 한데, 강요는 피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주민들도 우리나라 와서 살려면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서 살려면 그렇고, 그 나라에 이주해 가서 살려면 어느 정도는 그 나라의 언어나, 관습, 가치는 다른 여러 상황의 문제들도 피하기 위해서 언어, 관습, 가치는 익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죠. (대학생4)

우리나라의 언어 및 관습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틀 안에 한국이라는 또 다른 나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대학생11)

6) 차이 그리고 갈등

이주민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한 의사소통이나 문화인식의 차이는 대부분 많은 기회를 갖지 않았으며 갖는다 하더라도 이주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족같은 한국어가 능숙한 이주민의 경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주민의 성역할에 대한 사고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이주민과 언어로 인한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는 등 이주민과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과의 갈등경험은 인간에 대한 본질을 성찰한다면 다문화사회가 나아가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보다 진보된 사회로 유도하는데 필수단계일 것이다.

접촉했던 분들이 다 조선족이셔서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었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남녀 성역할에 약간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2)

알바 할 때나 가게를 볼 때 의사소통차이를 진짜 심하게 느껴요, 그래도 기본 적인 말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말하고 답답해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거의 남편이나 시부모님을 데려 오는 거 같지만요. 제가 빵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케이크를 샀을 때 초를 물어보잖아요, 그때 초가 뭐냐고 물어서 한참 헤맸던 적이 있어요. 아! 같이 알바 하는 아이가 “How old..”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영어 몰라요”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대학생4)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문화 역량을 알아보는 질적 연구로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활용하였고 주제분석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역량을 파악하였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로 구성되었다. 문화적 인식에는 이주민을 두축으로 바라봄, 색안경 끼고 이주민 바라봄, 이주민지원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들, 모두를 아우르는 이주민 지원,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다. 문화적 지식에는 다른 문화 만남을 위한 귀기울이기,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읽히기, 이주민의 가족세계 들여다 보기, 이주민의 우리문화 받아들이기로 구성되었다. 문화적 기술에는 부메랑같은 이주민정책, 이주민의 목소리 내기, 이주민을 다른 위치에 놓기, 가감 없이 이주민 대접하기, 우리사람으로 만들기, 차이 그리고 갈등으로 나타났었다.

조사결과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살펴보면 문화적 인식에서 ‘이주민을 두축으로 바라봄’은 이주민의 증가가 우리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지원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들’에서는 전폭적 지원, 한계있는 지원과 지원에 반대하는 등 다소 차이를 보였다. ‘모두를 아우르는 이주민 지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이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한국인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모양새’에서는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 많은 전제조건들이 제시되었고 다문화를 지향하지만 완전개방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표출하였다. 문화적 지식은 ‘다른 문화 만남을 위한 귀기울이기’를 통해 간접경험이 주를 이루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민족지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이주민의 가족관계 들여다보기’는 친척관계에서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여성보다 소홀하며 가부장 체제에 대해 힘들어하며 언어와 문화, 연령간 큰 차이가 있는 한국인남편이 결혼이민여성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였다. ‘이주민의 우리문화 받아들이기’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려는 이주민의 노력이 있어보이나 문화다양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기술은 ‘부메랑과 같은 이주민정책’에서 이주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주민의 목소리내기’는 권리주장을 넘어 실천과 정책제안까지 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외모와 고용관계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

주민을 다른 위치에 놓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종, 국가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언어, 관습, 가치의 강요에서도 지나친 강요는 안되지만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우리사람 만들기’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주민과의 접촉에서 갈등경험은 없었지만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견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인식에서 ‘늘어나는 이주민의 두 축’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영향들에 대해 대학생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이주민 증가가 우리사회에 순기능적 영향만을 제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대중매체의 영향이나 지나친 일반화를 통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실제로 대중매체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극단적인 사례들을 자주 접한 결과 특수한 사례가 일반화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민경, 2010)고 한 연구와 한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문화 수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간 접촉 경험의 성질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들(Liebkind, 2000; Nesdale & Todd, 2000)과 외국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송미영, 2010)를 볼 때 이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빈번한 접촉의 경험이 서로간 인식의 정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색안경을 끼고 이주민을 바라봄’의 결과를 볼 때 이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은 외모, 경제적 문제, 언어, 기타 음식이나 사고방식 등으로 한국인과는 다른 외모의 편견이 있었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제적 여건이 편견의 주원인으로 나타나 대학생들도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주민이 한국인과는 통합될 수 없다는 면을 지적하여 이주민과 한국인과의 거리감을 나타내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성은, 2008)에서 국제결혼을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긍정적 현상으로 보았으나 실제 배우자에 대한 인종간 차별선호로 나타나 시각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편견, 고정관념이 다양한 경험이 내재되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이나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이들에 대하여 아

직은 호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전영자, 전예화, 2010)는 선행연구와 일치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문화적 역량의 개발에서 자기지각과 자기반성은 타문화를 수용하고 평가하는 것에 선행되어야 한다(Andrus, 2001; Garmon, 2004)는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지원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목소리’에서 취업 준비나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언급하면서 이보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나 한계를 분명히 명시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가적 지원에 대해 신뢰를 갖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효진, 유계숙(2009)의 연구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위협지각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에 대해 인식전환과 동시에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한 것과 같이 일부 대학생들은 자원분배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이주민에 대한 배려보다는 한국인만을 위한 사고가 팽배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모양새’에서 유치원부터 다문화인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나친 개방보다는 우리 사회의 경계를 지키며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다문화사회 환경을 잘 이용하여 우리주체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 등을 언급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사회조건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문화에 외국문화가 유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한 것은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해 혼돈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이 문화간 이해와 수용, 그리고 조화로운 융합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에 부합되는 수준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양에경 외, 2007)고 한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하며 상황과 관계맥락에 따라 유동적 자기인식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의 특성(김의철, 박영신, 2006)을 볼 때 추후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문화적 지식에서 ‘다른 문화 만남을 위한 귀기울이기’는 책을 통한 간접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그 나라의 언어를 통해 문화까지도 습득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다른 나라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참여욕구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언어습득으로 나타냈다.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읽히기’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부재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시 각 국

가의 문화적 배경까지도 이해한다면 더 심층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민성혜, 이민영, 2009)에서도 대학생들의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전통, 가치체계, 세계관, 가족체계, 예술적 표현 등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갖기 위해 요구되는 인문학적 지식 등을 포함하는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적 역량에서 Campinha-Bacote(2002)는 문화적 만남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언급하고 있듯이 문화집단에 존재하는 신념을 조정하고 편견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충돌을 통한 문화적 상호작용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mith et al.(2009)은 문화적 다양성강의와 실제 체험학습이 함께 진행될 때 교육효과가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의 긍정적 영향은 문화다양성태도, 공동체적의식,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김정화 외, 2010; 민성혜, 이민영, 2009)에서 꾸준히 밝혀왔다. 요약하건데 앞으로 미래 예비실천가들이 다문화역량개발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다문화교육, 다문화체험과 봉사 등 다양한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해보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외경험자체보다는 자원봉사 및 외국인과의 보다 긴밀한 교류경험을 한 경우 세계시민의식이나 문화다양성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단순한 접촉보다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식습득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방문기회의 확대, 이주민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은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사회적 거리감, 부정적 인식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를 공유하고 경험하는 생활친화형 다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모색이 절실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등이 학교시스템에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증대되는 이주자의 증가, 외국인과의 공존 혹은 갈등,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가능성이 높아진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원만하고 능동적인 태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다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교육내용의 체계화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기술에서 ‘부메랑같은 이주민정책’은 단지 이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정책이 궁극

적으로 우리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넘겨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볼 때 우리 대학생들이 단순히 한 대상을 위한 정책으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순환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정책목표와 성과의 수혜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자신들이며 다문화주의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정책입안자와 실천가들에게 상기시키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주민의 목소리 내기’에서 참여자간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무조건적 권리주장이 아닌 한국의 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단순히 권리주장을 넘어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과 정책제안까지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개인 인권을 위한 정책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아래로부터의 인권적 보장의 장치가 마련되기 보다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차별의 경우, 외모에 있어서는 동남아시아인은 무시받고 서양인은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피부색은 차별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된 것을 볼 때 또한 이 내면에 백인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민이 인격적 존재보다는 한국의 도구적 존재로 보이는 면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이주민으로서 우리사회의 법적 구속망을 벗어나거나 외국인을 선호하는 곳도 있어 항상 차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이 언급되었다. 우리사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배우자감에 대한 선호는 유색인종에 대한 편협과 백인우월에 동조를 드러내며 인종차별적 경향을 위협스럽게 보여준 결과(양성은, 2008)와 한국인이 서구문명국가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열등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는 반면 후진국에 대해서는 인종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우월의식 등을 과시하는 이중적 편견을 보인다(전수현, 2002)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현재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나 결혼 이민여성 대다수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저소득국가 출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외국인에게 지나친 관대와 관용이 무조건적으로 다문화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확신할 수 없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와 같이 백인우월에 동조하거나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외국인에 대한 관용은 한국의 질서유지와 인류의 보편성에 기인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들은 이주민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지나친 강요는

안되지만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 관습, 가치 등을 배워야한다는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식의 동화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언어 및 관습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적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결과는 앞서 언급된 동화주의를 전제로 한 다문화주의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주민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녹아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문화적 기술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내에서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각 문화권에서 속하는 개인들의 가치와 경험되는 현실을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사회를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단일민족중심주의를 벗어나고 있다고 가정한 결과(민성혜, 이민영, 2009)와 일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대학생들은 이주민에 대해 한국인과는 다른 외모의 편견이 있었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치원때부터 다문화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살아가는데 이행되어야 할 과제가 조기에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즉 우리국민의 인식개선은 우선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인식과 교육이 자리잡아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교육의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논의는 배경을 가진 대학생을 우리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화적 행위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모두를 아우르는 이주민 지원’으로 이주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나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서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자체를 우리정부가 사회가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한 이주민의 취업과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들의 취업욕구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이선 외, 2007)결과가 일부 뒷받침될 수 있는

데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이주민에 대한 편견, 차별 등은 더 강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문화적 지식에서는 ‘다른 문화만남을 위한 귀기울이기’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데 책을 통한 간접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참여육구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언어습득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읽히기’에 있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대학생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과정을 마련하거나 관련있는 교과과정에 일부 다문화지식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외모와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을 언급하였다.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한국상황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주민이 도구적 존재가 아닌 상생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문화적 역량에 대한 논의가 철학적 정의에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점(Sue, 2006)으로 볼 때 실천적 노력이 우리사회 패러다임의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공감이 문화적 역량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체험과 경험적 학습의 매개효과가 있음에 근거하여 공감증진 훈련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민성혜, 이민영, 2009)라는 선행연구의 언급처럼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접근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행연구들(김민경, 2010; 양성은, 2008)에서 연구대상자들은 동화주의를 전제로 한 다문화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이상적인가? 이상적이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상상황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사회의 모습을 다문화주의로 유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의 결과가 우리실정에 맞는 미래 다문화사회의 방향과 모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문화적 인식,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 등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문화적 역량의 하위구성요소들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질문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자들의 다문화 역량 관련변인간 원인과 결과, 상호작용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이주민과의 접촉과 경험의 정도가 심층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봉사경험과 다문화에 관심을 가진 대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자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이주민과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에서 경험이 전무하거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까지를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결론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인식의 개선과 함께 우리사회가 다양한 지원과 한계를 극복해내는 노력이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상이 대학생이니만큼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토대로 이주민을 대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이주민의 권리, 차별, 평가, 우리문화의 전달 등 직접적으로 이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습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동화를 전제로 한 다문화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유도하고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른 문화체험에 대한 폭넓은 시도와 지식습득 및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 역량,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대학생, 질적 연구

참 고 문 헌

- 김민경. (2010).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69-86.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6.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 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1-36.
- 김정화, 박선혜, 조상미. (2010).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7**(4), 183-210.
- 민성혜, 이민영. (2009).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83-206.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5.
- 설동훈. (2006). 국민 민족 인종: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송미영. (2010). 다문화수용성의 원인분석. *민족연구*, **41**, 74-97.
- 신경림. (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애경, 이선주, 최훈석, 김선화, 정혁.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성은. (2008). 국제결혼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37-60.
- 유태균. (2001).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윤갑정, 김미정. (2008). 다문화시대 유아교사의 문화적 역량 개발 방향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55-85.
- 윤상우, 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이명진, 최유정, 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정우. (2007).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한 예비교사의 고정관념: 사회과 예비교사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39**(1), 153-178.
- 인태정. (2009). 다문화사회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2), 339-370.
- 장태한. (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만족선호도에 관한 연구. *당대비평*, **14**, 99-113.
- 전수현. (2002). 필리핀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영자, 전예화. (2009).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3.
- 정연희. (2007). 미술교육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미술교사의 문화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연선, 최혜지, 최원희. (2008a).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화적 유능감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35-241.
- 최연선, 최혜지, 최원희. (2008b). 사회복지실천 인력의 문화적 유능감(cultural competence)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42-247.
- 최윤정, 이미영, 조미자, 문정신. (2003). 치매노인 여성의 체험연구. *한국노년학회*, **23**(1), 113-128.
- 최효진, 유계숙. (2009). 이민자와 이민자지원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27.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홍기원. (2007).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문화예술교육박람회 다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세미나 자료집*, 12-36.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99). *Cultural Competence Compendium*,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0). Guidelines for Providers of Psychological Services to Ethnic, Linguistic, and Culturally diverse Populations. Retrieved June 30, 2010, from www.apa.org/pi/guide.html.
- Andrus, L. (2001). The culturally competent art educator. *Art Education*, **54**(4), 14-19.
- Aponte, J., Rivers, R., & Wohl, J. (1995).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nd Cultural Diversity*. Boston: Allyn and Bacon.
- Boyle, D., & Springer, A. (2001). Toward a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social work with specific populations. *Journal of Ethnic and*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9(3-4), 53-71.
- Brewer, M. B. (2003). *Intergroup relations* (2nd ed.). Milton Keynes : Open University Press.
- California Endowment. (2003). *Principles and Recommended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California: Thousands Oaks.
- Campinha-Bacote, J. (2002). Cultural competency in healthcare delivery: Have I asked myself the right question? Retrieved November 26, 2006 from <http://www.transculturalcare.net>.
- Clark, J. A., & Legge J. S. Jr. (1997). Economics, racism, and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the New German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0, 901-917.
- Crocker, J., Major, B., & Steele, C. (1998). Social Psychology. Oxford: Gillbert, S. T. Fiske, and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504-553). New York: McGraw-Hill.
- Cronin, M. S. (2005).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in New York, NY.
- Cross, T., Bazron, B., Dennis, K., & Isaacs, M. (1989).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Washington, de: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 Diller, J. V. (2007). *Cultural Diversity: A Primer for the Human Services*. Thomson: Brooks/Cole.
- Garmon, M. A. (2004). Changing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belief about diversity.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5(3), 214-226.
- Hainmueller, J., & Hiscox, M. J.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 399-442.
- Hatch, J. A.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uberman, A., & Miles, M.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Kunda, Z. (1999). *Social Cognition: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 Oxford: Clarendon Press.
- Lewin-Epstein, N., & Levanon, A. (2005). National identity and xenophobia in an ethnically divided society. *International Behavior*, 12, 119-128.
- Liedbkind, K. (2000). Acculturation. in R. Brown and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 386-404. Oxford: Blackwell.
- Lum, D. (2005). *Cultural Competence, Practice Stages, and Client Systems: A Case Study Approach*. Belmont, California: Brooks/Cole.
- Lum, D. (2007).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Diverse Groups and Justice Issues* (3rd. ed). Belmont, California: Brooks/Cole.
- Luquis, R. R., & Perez, M. A. (2006). Cultural competency among school health educator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3(4), 217-222.
- Manoleas, P. (1994). An outcome approach to assess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MSW students. *Journal of Social Work in Long-term Care*, 2(1/2), 81-94.
- McPhatter, A. R.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6-278.
- Medrano, J. D. (2005). Nati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contemporary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7, 133-156
- Medrano, J. D., & Koenig, M. (2005). Nationalism,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social scien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7, 82-89.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tional Committee on Racial and Ethnic Diversity. (2001).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ork Practice*. Washington DC: NASW Press.
- Nesdale, D., & Todd, P. (2000). Effect of contact on intercultural acceptance: A field study.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341-360.
- Ruefle, W., Ross, W. H., & Mandell, D. (1992). Attitudes toward Southeast Asian immigrants in a Wisconsin commun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6, 877-898.
- Smith, D., Moore, G., Jayaratne, K. S. U., Kistler, M., & Smith, D. (2009). Factors affecting the global mindness of extension agents: Implications for building global awareness of extension agents.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Meeting*, Intercontinental san Juan Resort, Puetorico.
- Sue, S. (2006). Cultural competency: From philosophy to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2), 237-245
- Sue, S. & Sue, D.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Cole.
- Weaver, H. N. (2005). *Explorations in Cultural Competence*. California: Thomson Brooks/Cole.

접 수 일 : 2010. 08. 03.

수정완료일 : 2010. 11. 09.

게재확정일 : 2010. 11. 12.